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희길 글 / 허구 그림



표지 탐색하기

<기억 속의 들꽃>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

3)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책에서 나올 이야기를 예상해 봅시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 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 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뭐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송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① 거대한 교각 바로 위에서 꽃송이가 어떻게 피었을 것이라고 했나요?

⇒

②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한 '기억 속의 들꽃'이란 어떤 꽃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또 그 꽃의 모양과 크기는 어떠한지 쓰세요.

⇒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희길 글 / 허구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서까래가 울고 흙벽이 떨어졌다.
- ②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골치 아픈 ()로 발견되었다.
- ③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 속을 ()로 헤집고 다니며 거둑거둑 내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서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여 있었다.
- ④ “참말로 ()이네, ()이여!”

(나) 소리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을 ㉠칩떠보고 ㉡내립떠보는가 하면, 헛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 저고리 앞섶에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가 떠올랐다.

1) 다음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팔모 : 여러 방면. 또는 여러 측면. · 재변 : 재앙으로 인하여 생긴 변고.
- 뒤통거리 : 미련하거나 찬찬하지 못하여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
- 남포 : 도화선 장치를 하여 폭발시킬 수 있게 만든 다이어마이트.

2) (나)의 밑줄 친 낱말 ㉠‘칩뜨다’, ㉡‘내립뜨다’의 사전적인 뜻을 아래 [보기]에서 각각 골라 기호를 쓰세요.

· ㉠의 뜻 : (), · ㉡의 뜻 : ()

- [보기] ㉠ 눈을 치뜨고 노려보다. ㉡ 눈길을 아래로 뜨고 노려보다.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흥길 글 / 허구 그림



기억 속의 들꽃(1)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 때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따른 집이나 가 보라니께!” /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 주려구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아아니, 너, 고거 금가락지 아니냐!”

(나)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설움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먼젓번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 돈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 허다. 따른 사람은 눈을 까뒤집어도 안 보이는 노다지가 어째서 니 눈에만 유독이 들어온다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지껄이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 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1) (가)~(나)에서 ‘어머니’가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여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어머니’가 ‘명선이’의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흥길 글 / 허구 그림



기억 속의 들꽃(2)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 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 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나)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 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뉘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끈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형겅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갭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1) (가)에서 ‘서울 아이’가 다리에서 강심으로 떨어져 죽은 이유와 ‘서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을 각각 찾아 쓰세요.

① 이유	
② 가리키는 말	

2) (나)에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지옥의 가장귀에서 되돌아 나오다 철근에 있는 형겅 주머니를 보았음.	➡	①	➡	②
---------------------------------------	---	---	---	---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흥길 글 / 허구 그림



떨감(1)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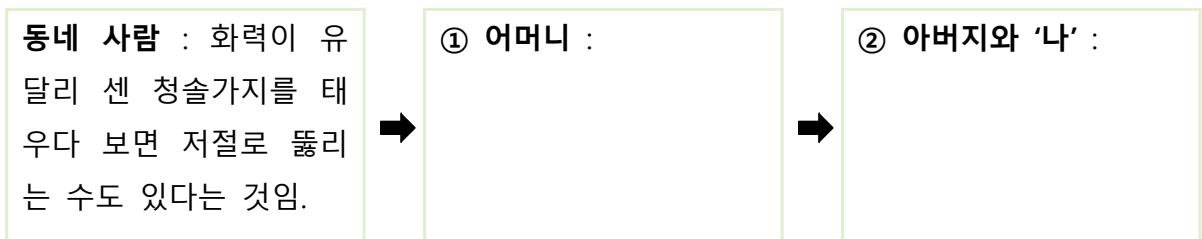
(가) 그럴 무렵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뽀족한 수를 일러주었다. 화력이 유달리 센 청솔가지를 한바탕 기세 좋게 태우다 보면 더러는 저절로 뿜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일차로 어머니의 귀에 솔깃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양민증 문제로 직장도 잃은 채 은둔 칩거하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아버지를 형편 없이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게으름뱅이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침내 분발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그 청솔가지를 몰래 쳐 오기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의 장남인 내가 분연히 나선 길이었다.

(나) 그 증거로 아버지가 어깨를 들썩이자 지게에 담긴 청솔가지가 제꺼덕 대꾸를 했다. 어쩐지 혼자서 도망쳐서 숨어 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버지가 산감을 결정적으로 꾸짖는 장면을 못 본 것이 조금도 섭섭지가 않았다.

“집에 가거든 느 에미한테 본 대로 얘기혀도 괜찮다. 아버지가 산감 녀석 버르장머리 곤쳐 놓은 얘기 말이다.” / “예.”

아버지가 앞장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귀떨어진 조각별 하나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었다. ㉠어둠이 자꾸만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 놓으려 덤볐다.

1) (가)에서 등장인물에게 벌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나)에서 ‘나’가 ㉠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희길 글 / 허구 그림



떨감(2)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화차 그늘 속으로 뛰어든 다음부터는 녀석들의 행동이 갑자기 기민해지면서 배짱도 보통이 아니었다. 큰 녀석들은 화차 위로 기어오르고 작은 녀석들은 약간 틈이 벌어진 문을 찾아 갈고리를 쑤셔 넣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두머리 길봉이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화차 꼭대기까지 뽀르르 기어 올라가서 탄더미에다 납작 배를 깔고는 욕심껏 자루 속에다 조개탄을 퍼 담았다. 우선 제것부터 후딱 채워 아래에서 받아 내리게 하고는 남의 자루까지 떠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는 길봉이를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서 나는 그 속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낸 채 다른 아이들이 땅바닥에 흘리는 거나 옆에서 간신히 주워 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나) “이놈아, 누가 너더러 도둑질하는 자리 따러댕기라고 시키드냐? 느 애비가 시키디야, 느 에미가 시키디야?”

그러다가 아버지는 막판에 가서 회초리를 내 손에 건네주고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돌돌 걸어올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소리 한 마디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 (가)에 나타난 ‘길봉이’와 ‘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구도로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길봉이 :	⇔	② ‘나’ :
---------	---	---------

2) (나)에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나’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걸어올리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지 써 보세요.

⇒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홍길 글 / 허구 그림



집(1)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버지의 진면목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하여 우리 집이 강제로 철거당하던 그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전에도 가족들이 차마 낫을 못 들 정도의 해괴한 짓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적이 한 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러나 힘센 시청 인부들이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갈고리와 해머질에, 그래도 내 집이라고 정을 붙여 살던 그 판잣집이 장작더미처럼 폭삭 주저앉아 버린 비극의 날을 맞아 아버지가 남긴 유명한 공무 집행 방해의 일화에 비하면 그 따위 것들은 한낱 애교에 불과했던 셈이다.

(나) 집이 헐린다. 빈집이 아니라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손으로 헐린다. 그것도 멀쩡한 대낮에, 사람이, 벼락이나 사태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와그르르 허물어져 내린다. 그것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실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철부지 우리는 호기심이 요구하는 만큼의 흥분에 도달하지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불길에 휩싸여 훅훅 타는 광경은 여러 번 구경했어도 두 눈을 뜬 채 지켜보는 앞에서 집채가 폭삭 주저앉는 꼴은 여태껏 구경을 못 했다.

1) (가)에서 ‘아버지’의 진면목이 가장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① 벌어지고 있는 일 :	② 우리의 반응 :
---------------	------------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흥길 글 / 허구 그림



집(2)

<기억 속의 들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마침내 형이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었다. 형은 대뜸 작업 지휘자를 붙잡고 자기가 허락하기 전엔 그 누구도 집을 부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린애를 상대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형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길을 막는 데야 그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했다. 큰 권한을 쥔 어른과 거기에 맞선 어린애 사이에 곧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남의 집을 함부로 헐려하느냐고 형이 물었다. 나라의 명령이라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책임자가 대답했다.

(나) 형이 한밤중에 교회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종을 치며 소동을 벌인 것은 집을 잃은 바로 그 날 밤의 일이었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비치는 플래시라이트 속에서 형은 눈자위를 하얗게 뒤집어 깐 채 대롱대롱 줄에 매달려 종을 치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얻어맞고 걷어채고 때밀려도 형의 몸뚱이는 줄의 일부인 양 늘어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미친 듯이 울리는 종소리가 어두운 밤하늘 가장자리를 찾아 언제까지고 퍼져 나갔다. 뚱그렁 뚱그렁 뚱그렁 뚱그렁.....

1) (가)에 나타난 ‘형’과 ‘책임자’ 사이에 벌어진 열띤 논쟁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① 형 :	↔	② 책임자 :
-------	---	---------

2) (나)에서 ‘형’이 한밤중에 교회의 종을 치며 소동을 벌인 이유를 추측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기억 속의 들꽃

다림 | 윤흥길 글 / 허구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예시답안) 주인공의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들꽃과 관련된 어떤 일화일 것 같다. 2) (예시답안) 하얀색 반소매 윗옷과 치마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양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그 아이 뒤에는 하늘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아이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3) ① 꽃씨 한 알이 바람을 타고 와서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뿌리를 내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② 쥐바라송꽃,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 동전만한 크기.
2쪽	1) 재우치다 : ②, 웅숭깊다 : ③, 공론하다 : ①, 누비다 : ④ 2) ㉠ : 혈혈단신, ㉡ : 천신만고
3쪽	1) ① 남포, ② 뒤통거리, ③ 팔모, ④ 재변 2) ㉠---㉡, ㉢---㉣
4쪽	1) (예시답안) 다른 집에 가 보라고 말하던 어머니는 명선이가 내미는 금반지를 보고 반색했고, 두 번째 금반지는 한 돈 반짜리라는 감정을 내리며 명선이를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사람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잘못된 것이다. 2) 다른 사람은 찾기 힘든 노다지(금반지)를 명선이가 길에서 주워 왔다고 말해서
5쪽	1) ①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서 ② 한 송이 쥐바라송꽃 2) ①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음. ② 주머니에서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음.
6쪽	1) ① 그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렸고, 아버지를 게으름뱅이로 몰아붙임으로써 분발시키기에 이르렀음. ② 그 청솔가지를 몰래 쳐 오기 위해서 가장인 아버지와 장남인 '나'가 길을 나섰음. 2) 아버지가 산감을 꾸짖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았다고 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서
7쪽	1) ① 화차 꼭대기에서 욕심껏 자루 속에다 조개탄을 퍼 담았고, 우선 제것부터 채우고 남의 자루까지 떠맡아 처리하기도 했음. / ② 다른 아이들이 땅바닥에 흘리는 것이나 옆에서 간신히 주워 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음. 2)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자리를 따라다닌 '나'를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 때문에
8쪽	1) 내 집이라고 정을 붙여 살던 그 판잣집이 장작더미처럼 폭삭 주저앉아 버린 비극의 날을 맞아 아버지가 남긴 유명한 공무 집행 방해의 일화 2) ①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멸절한 대낮에 사람의 힘으로 혈림. ② 좀처럼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오지 않음.
9쪽	1) ① 당신이 무엇이기에 남의 집을 함부로 헐려하느냐고 물었음. ② 나라의 명령이라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대답했음. 2) (예시답안) 형이 한밤중에 교회의 종을 치며 소동을 벌인 것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집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친 듯이 울리는 종소리가 밤하늘에 퍼져 나갔다는 것에서 형이 정신에 이상이 생겨 제정신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